

#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아래 창조와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인민에게  
 동양의 인사를 삼가 드려드립니다.  
 온 나라로 온 겨레의 소중한 행복이  
 더 한층 꽃피기를 우리 인민에게서  
 인민들의 귀한 인연을 영원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우리 인민의  
 리상과 영혼이 꽃피는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있게 투쟁하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에서도 인민중심의  
 우리 당의 믿을 만한 인재를 위하여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십시오.  
 위대한 인민을 위한 충실  
 인민적인 투쟁을 계속하십시오.  
 맹세합니다.  
 김정은  
 2021.1.1

류레없는 력사의 격랑과 갈래없는 난파도  
 속에 흘러온 행성의 2021년.  
 허나 송년의 기슭에서 곁어온 한해를 돌아  
 보는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류다른  
 긍지와 승리의 희열이 고쳐치고있다.  
 년초에 설계도에 불과했던 현대적인 살  
 립집들이 온 나라 도처에 자기의 자리를  
 완연히 드러내며 일떠섰고 더 거창한 선  
 경창조의 끝없는 뒤흔음이 이어지는 속에  
 공화국은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더 강대  
 해졌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고 청  
 년들은 앞을 다투어 수도와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어렵고 힘든 곳마다에서 소중한  
 꿈을 묻어 락원을 꽃피운다.  
 과연 어떤 거대한 힘이 기적같은 승리를  
 창출하고 어떤 불같은 사랑이 겨울을 이기  
 는 봄의 화원을 가꾸며 어떤 위대한 손길  
 이 더욱 휘황한 미래를 가리고있는것  
 인가.

## 기적과 문명창조의 장쾌한 불리성

세계적인 대재앙과 중  
 첩되는 자연재해로 인  
 해 피난민사태가 급증하  
 고 보금자리를 잃고 헤  
 메이는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행성을 메우지만  
 울헤에 공화국에서는 인  
 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  
 해주기 위한 거창한 착  
 공의 발파소리들이 련이  
 울리었다.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손  
 색없는 훌륭한 건축물로  
 일떠세우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3월 평  
 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  
 공식이 진행되는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 나오시  
 여 뜻깊은 연설도 하시고  
 건설이 시작된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건설현장에  
 까지 나오시여 세심한  
 가르침을 주시었다.



## 인민사랑의 맹약으로 시작된 한해

새해의 첫아침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이  
 올리는 새해의 인사를 받기  
 에 앞서 자신께서 먼저 온 나  
 라 가정들에 정깊은 축복의  
 인사를 보내주시었다.  
 자신께서는 새해에도 우  
 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  
 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것이라  
 위하여, 어려운 세월속에서도 변  
 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  
 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사를 드린다고, 위대한 인  
 민을 받드는 총심 일편단심  
 변함없을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맹약  
 으로 새해 2021년은 시작되  
 었다.  
 새해에도 인민들앞에 행복  
 의 날과 달만을 펼쳐주시려  
 는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과  
 격정속에 받아안은 이 나라  
 인민들이었다.

## 승리의 진로가 명시된 회의들



공화국의 력사에 여덟번째  
 로 열린 당대회가 장엄한 투  
 쟁의 서곡을 알리듯 2021년  
 을 활짝 열어제끼고 승리의  
 진로들을 명시해주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연  
 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울려주신 구호는  
 《인민위전》, 《일심단결》,  
 《지력갱생》이었다.  
 인민을 하늘로 떠받들고 인  
 민자신의 힘을 전진동력으로  
 하여 인민이 하나로 뭉쳐나  
 갈 때 승리가 온다는 인민  
 중시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  
 맥동치는 류다른 당대회구호  
 는 인민의 심장마다에 료원  
 의 불길로 타오를 불씨를 심  
 어주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  
 습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조  
 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  
 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  
 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  
 육일군대회 등 련이어 소  
 집된 회의들에서는 나라의  
 자립적이고 전면적인 발전  
 을 위한 진로들이 명시되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회  
 의에서 제시하신 과업들  
 은 철야를 모르는 인민들  
 의 거창한 투쟁으로 이어  
 져 그 관철이 이룩되고 울  
 해를 승리의 해로 빛내이  
 게 되었다.

## 공화국창건 73돐 성대히 경축

공화국창건 73돐 경축  
 행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정치예술과 독특한  
 령도방식을 세계앞에 실증한  
 실로 총격적인것이었다.  
 공화국의 막강한 군력과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을 만천하에 남김없이  
 파시하며 진행된 민간 및 안전  
 무력열병식과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본부청사 트랙에서 평  
 범한 각계층의 근로자들이  
 령도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한  
 식술처럼 모여앉아 진행한 경  
 축연회를 보며 세인은 부러움  
 과 경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 온 한해 굽이친 청년들의 탄원열기

지난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한 청년들  
 을 만나주시고 뜨거운 사랑  
 과 믿음어린 축복을 안겨  
 주시었다.  
 보석같은 예곡의 마음들이  
 너무도 장하고 미더우  
 시어 한사람한사람 따듯이  
 손잡아주시면서 그이께서는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  
 오기 위한 간고한 투쟁을  
 이어가고있는 시대에 이들처럼  
 당과 혁명의 부름에 충  
 실한 청년들이 수많이 배출  
 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  
 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표  
 출이며 우리 청년들의 고상  
 한 인생관, 미래관의 발현이  
 라고 값높은 믿음의 평가를  
 주시었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안고  
 그들의 뒤를 이어 수많은  
 청년들이 수도시민증을 탄  
 원증으로 바꾸어주고, 또  
 나서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나라의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원진출하였다.  
 령도자의 믿음어린 축복  
 을 받아안은 청년들은 온  
 나라도처에 꽃씨처럼 뿌  
 리내려 이 나라를 백화  
 란만한 화원으로 꽃피우  
 리라.

